〈1면에 이어〉

선생은 서로의 반목을 해소하고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를 권하다가 다시 파직된 후 명종 2년(1547) 양재역벽서(良才驛壁書)사건에 몰려 구례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그곳에서 평안도 삭주(朔州)로 옮겨진 이듬해인 明宗 3년(1548) 3월에 71세를 일기로 졸하였다.

명종 21년(1567)에 복권되었고 선조 2년(1568)에는 좌의정(左議政)에 추증되고, 선조 4년(1570)에 충정(忠定)의 시호가 내렸다. 선조24년(1594) 중국의 <대명회전大明會典>에서 잘못 기재된 조선 왕가의 혈통을 고쳐서 인쇄한 <대명회전>이 출간되자 선생의 공로를 인정하고 영의정(領議政)으로 가증되고 광국원종1등공신(光國原從一等功臣)의 녹권과 친진부조(親盡不祧)은전이 내렸다.

선조2년 퇴계 이황(李滉)이 시장을 지었으며 선조34년 삼계서원이 완공되어 충정사(忠定祠)위판을 봉안하였으며 인조1년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는데 비문은 박순(朴淳)과 정경세(鄭經世)가 짓고 김상용(金尙容)이 전서하였다. 그리고 효종 10년 임금이 사액(賜額)하였다.

선생의 사 후 이황, 정구, 이이와 송시열 등이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선생은 평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었으나 나라의 일이나 의리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추상같이 대하였다고 한다. 선조 임금이나 당대의 석학인 율곡 이이(李珥), 우암 송시열(宋時烈) 같은이도 선생을 사직지신(社稷之臣)이라고 평하였다.

△사당과 갱장각 : 경북 봉화읍 유곡리963

닭실(酉谷)의 유래와 人傑

닭실은 충재공의 외조부 윤당(尹塘)이 살던 곳으로 윤당은 세조가 지봉(芝峯)의 가솔을 절멸시키려 하자 유곡에 숨어 살았으며 일남이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현감을 지낸 여필(汝弼)이다. 딸은 생원 권사빈(權士彬 19世)과 혼인하여 사남일녀를 두었는데 맏이는 현감을 지낸 야옹공(野翁公)의(檥)이며 후손들은 안동 도촌, 예천, 저곡에 살며 둘째가 충재선생 벌(橃)이고 다음에 딸인데 이함(李諴)에게 출가했다.

야옹공과 넷째 제촌공은 예천 맛질에서 살았고 충재선생과 셋째 찰방공은 닭실(酉谷)에서 살았다. 충재선생의 후손들은 크게 번창하여 닭실, 물야면 서리, 법전, 춘양, 강릉을 비롯하여 서울, 대구 등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살고 있다.

충재선생 이후 닭실권씨는 문과급제 16명, 소과급제 59명, 참판 2명, 부윤(府尹) 1명, 방백수령(方伯守令) 12명, 의병장(義兵長) 3명이며, 광복 후 국회의원 2명, 차관 2명, 대학총장 1명을 배출하였다. 또한 시호(諡號)를 받은 분이 2명이며, 서원에 배향된 분이 5명이며, 불천위(不遷位) 1명, 功臣 1명이다.

닭실은 산천수려山川秀麗(산천의 아름다움), 문필불절文筆不絶(문장, 명필이 대를 이음), 충효지향忠節之鄕(충의와 정절의 고장)으로 특히 영남지방에서 '문필마을'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문집(文集)과 유고(遺稿)를 남긴 분이 90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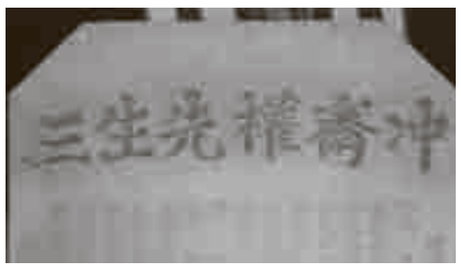
특히 詩 300여편을 남긴 충재선생의 증손인 백운자 상명(白雲子 尙明)은 당대의 명인인 택당 이식(澤堂 李植), 북저(北渚), 김응조(金應祖), 백사(白沙), 윤훤(尹暄), 두곡(杜谷) 홍우정(洪宇定) 등과 교류했으며 5대손에 이르러 이른바 28斗라 하여 '字' 항열 28명이 도학(道學)과 문필(文筆)로 크게 알려졌으며 닭실(酉谷)의 육기(六奇)라 하여 하당(荷塘)의 文(5대손 斗寅), 창설재(蒼雪齋)의 詩(5대손 斗經), 대졸자(大拙子)의 筆(5대손 斗應), 강조(江左)의 才(6대손 萬), 평암(平菴)의 忠(7대손 正枕), 송관자(松館子)의 畵(7대손 正敎) 그리고 닭실(酉谷)의 삼절(三絶)이라 하여 백운자(白雲子) 상원(尙遠)의 시, 대졸자(大拙子) 두응(斗應)의 글씨, 송관자(松館子) 정교(正敎)의 그림을 꼽는다.

〈죽헌 권경석〉

△ 신도비각, 좌측 뒤에 사당이 있다. 봉화읍 삼계리 174번지

△ 충정공사 (삼계서원) 봉화읍 삼계리 174번지

△ 충재선생 위패



△충재선생 신도비

△ 충재사와 청암정 : 봉화읍 유곡리963

△종택 : 봉화읍 유곡리963

△청암정사 : 미수 허목의 글씨

재계(財界) 안동권씨 전성시대

안동권씨 35世 경영인

이 기사는 조선경제(2014. 9.18(목) 기사를 인용 보도한다.

안동권씨 35世 다섯(5)경영인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4일 현대중공업 사장에 임명된 권오갑 (추밀공파 35世) 대표를 비롯해 권오준(검교공파 35世, 포스코 회장) 권오현(동정공파 35世, 삼성전자부회장), 권오용(검교공파 35世, 호서그룹 고문), 권오철(복야공파 35世, SK하이닉스 고문) 모두 족친이다. 이들은 안동권씨 35世세 손으로 '오(五)자 항렬을 쓰며 권오준 회장과 권오용 고문은 친형제다.

재계 일각에선 '안동권씨 전성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권오갑 대표는 최근 권오용 고문을 만난 자리에서 "권오(權五)모임(一名 35世세 침목회)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건냈다고 한다.

이 다섯분은 화려함 보다는 타길 걷지 않고 한우물만 파다가 정상에 오른 '내공형(型)'이다.

권오갑대표는 한국외대 졸업 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중공업맨'으로 일관했다. 권오철 고문도 '하이닉스'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아 사장까지 지냈다. 권오준 회장과 권오현 부회장은 각각 철강과 반도체 분야를 , 권오용 고문은 '홍보' 외길을 걸었다.

허례의식을 꺼리는 것도 닮았다. 권오갑 대표는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친상을 치렀고 권오준 회장은 직원들과 도시락 대화를 즐기며 권오현 부회장은 의전을 따지지 않는 검소한 스타일이다. 이렇듯 다섯분은 안동권문의 큰 일꾼 그릇으로써 두각을 나타내며 새로운 비전과 역사 창출에 새 지평선을 펼쳐주고있다.

권오갑

권오준

권오현

권오용

권오철

괴운칼럼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기원하며

아시아의 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길

■ 권해조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36세 복야공파)

제 17회 아시안게임이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16일간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은 45억 아시안의 스포츠축제마당으로 아시아올림픽평회의(OCA) 회원국 45개국이 모두 참가하는 역대최대 대회이다. 총 1만 4천5백여 명이 참석하여 36개 종목에 금메달 439개(단체포함1108개)를 걸고 49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안 게임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인의 우호와 세계평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스포츠대회이다. 1949년 2월 아시아 9개국 대표 11명이 모여 아시아 경기연맹(AGF)을 창설하여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11개국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제 1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제 1회 대회는 불참하고 제 2회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1986년 제 10회 서울대회와 2002년 제 14회 부산대회에 이어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다.

9월12일 인천 선수촌 국기광장에 참가국 45개국 국기가 게양된 가운데 선수촌이 개장하였다.

선수촌은 22개동 2220개실 규모로 최대 1만 4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식당은 12일부터 24시간 가동되며 수백 명의 요리사외 지원병이 한식, 동양식, 서양식, 할랄식(아랍인식) 등 총 548 종에 이르는 음식을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의료진도 9개과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통역 자원봉사자 129명이 24시간 상주한다, 그리고 선수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탁구장, 당구장, 미용실, PC방 각종 공연장 등도 준비되어있다. 그리고 대회조직위는 소변검사 1600건 혈액검사 160건 등 1920건의 역대 최대 규모의 도핑검사와 최초로 주사바늘 금지규정도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9월11일 올림픽공원에서 결단식을 갖고 36개 전 종목에 선수 831명(남자 454명, 여자377명) 임원 237명 총 1068명이 참가하여 사격, 양궁, 태권도 등 효자종목을 포함하여 금메달 90개 이상을 획득하여 1998년 제13회 방콕대회 이후 5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선수 14개 종목에 150명과 심판, 임원진, 기자 등 273명이 참가하여 톱10 진입을 목표로 하여, 9월11일 오후 1진 선발대 94명에 이어 16일 본진 87명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처음에는 350명의 응원단과 숙소로 사용할 망경봉호의 파견을 계획했으나 취소하였다. 북한은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 291명,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303명,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124명의 응원단을 파견하였다.

북한응원단 파견은 남북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로서 우리의 대북경계심과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화전양면전술과 대남심리전으로 보고 있고, 체제비용을 우리정부가 부담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스포츠는 남북 긴장완화와 교류에도 촉매역할을 해왔다. 남북한은 1990년 경평(京平)축구대회, 91년 세계탁구선수권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했고, 북한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2005년 9월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도 참가했다.

이번 아세안 게임은 문화스포츠사업으로 남북한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좋은 계기이다. 그러나 북한 미녀응원단이 참가하여 아시안게임의 '치어리더'로 통일전령 역할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불참하여 아쉽다. 그리고 북한 인공기는 선수촌내 게양과 북한선수단에 한해 경기장 안에서만 사용응원이 허용하기로 하였다.

19일 개막식 주제인 '45억의 꿈, 하나되는 아시아'처럼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이 인천과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아사이인의 화합과 공영을 위한 축제마당인 동시에 남북한평화통일에도 앞당기는 동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제 17회 인천아시안 게임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회를 준비한 인천광역시와 각국 관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와 개인의 명예를 위해 분투하는 출전선수들의 선전과 투혼을 빈다.

• 동정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구서 창조경제 재시동' 일환의 행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서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창조경제의 시동을 걸었다. 17개 시도별로 들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과 연계해 실질적 창업센터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첫 출발인 대구는 국내 1위 기업인 삼성과 손잡고 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오을 새누리당 인재 영입 위원장은

새누리당 인재영입 위원장 임명후 처음으로 인터뷰를 개최,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국회사무총장)으로써 '김무성의 사람들' 중심 역활 원외인사로 "우선은 보수혁신의 아이콘으로 국민에게 각인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는 다양한 인재의 영입으로 가능 하다는데 집행부가 뜻을 같이 했다는 말로 설명 할 수 있겠다." 고 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내 세우고 있는 국가개조와 국가 혁신 또한 인재 영입 기초공사가 튼실해야 가능하다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권노갑 前민주당 고문이

동국대 대학원 영어영문학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11일 밝혔다. 권고문은 지난해 '존F케네디 연설문에 나타난 정치사상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최고령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이사

금융투자협회는 4일 임시총회를 열어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이사를 회원이사로 선임했다. 이사 임기는 이날부터 2016년 9월3일까지 2년이다.

檢校公派宗會를 이끌어 갈 임원진

■기간 : 2013년10월18일~2016년10월12일

顧　　問 : 權五學, 權丙寅, 權春湜, 權泰旭, 權泰淵, 權寧直, 權寧海, 權五宣, 權五昌, 權五春, 權五喆, 權商睦

會　　長 : 權泰康

首席副會長 : 權武倬

常任副會長 : 權正澤

副 會 長 : 權正煥, 權泰春, 權盛一, 權泰臨, 權泰旭, 權正暉, 權寧哲, 權承一, 權正守

運營委員 : 權重來, 權重守, 權泰三, 權泰光, 權春卓, 權正吉, 權泰範, 權泰和, 權泰允, 權泰赫, 權泰鶴, 權龍泰, 權正燮, 權泰賢, 權正堣, 權憲燮, 權憲大, 權寧福, 權寧濟, 權寧昌, 權寧珉 ,權裕錫, 權寧建, 權寧根, 權寧鎭, 權寧倍, 權寧大, 權寧昱, 權寧運, 權寧九, 權寧大, 權寧爇, 權寧直, 權寧默, 權五宗, 權五甲, 權五得, 權五燮, 權五瑞, 權五甲, 權五瑄, 權五顯, 權五性, 權五政, 權五局, 權赫日, 權赫宗, 權赫晩, 權舜國

監　　事 : 權泰政, 權寧周

別 有 司 : 權泰淵, 權寧和

總務部長 : 權寧鎬

女性部長 : 權寧淑

弘報部長 : 權寧保

安東權氏 檢校公派 宗會長 權泰康 謹告

권영우 족친

(복야공파 종정공계宗正公系)

권영우權永祐(복야공파 종정공계宗正公系 시조후 36세·庚辰1980년생)씨는 2014년 7월 7일 미국 버지니아工大 대학원 컴퓨터科學科에서 Eli Tilevich 敎授의 指導로 작성한 "Effective Fusion and Separation of Distribution, Fault-Tolerance, and Energy-Efficiency Concerns"라는 제목의 논문이 통과되어 박사학위를 取得하고, 이어 미국 유타州立大學校(Utah State University) 컴퓨터科學科 助敎授로 임용되어 8월 1일자로 재직하고 있다.

權박사는 경북대학교 컴퓨터과학과와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에서 각각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大宇電子와 NAVER의 硏究員을 거쳐 지난 2008년 6월에 미국으로 유학하였다. 부인 金銀美씨와의 사이에 아들 潤相군을 두고 있다. 權박사의 부친 權甲鉉씨는 東洋大學校 컴퓨터工學科 교수이며 안동권씨 僕射公派宗會 부회장이다.